

동아제약, 자이테나 인기 “상종가”

1/4분기 점유율 11.8%로 국내시장 3위 도약 ... 위염치료제도 판매 호조

동아제약이 오랜만에 활짝 웃고 있다.

국산 신약으로는 드물게 자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테나>가 선전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격적인 마케팅 공세가 뒷받침된 것이지만, 자이테나는 발매 6개월만인 6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는 한국Pfizer의 비아그라, 한국Lilly의 시알리스, 한국Bayer의 레비트라 등 글로벌 제약기업과 동아제약 자이테나 등의 4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이테나의 기세는 2006년 1/4분기 11.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비아그라 49.4%, 시알리스 30.4%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자이테나 판매를 통해 2006년 최소 150억원, 최고 18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출시 1년만에 100억원대를 훨씬 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동아제약은 국내 제약업계 1위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자이테나의 성공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신약개발 제약사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전문의약품 생산·판매 선두주자로 확고한 자리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자이테나 뿐만 아니라 2003년 선보인 천연물 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판매호조를 보여 2006년 4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이테나와 스티렌 등 2개의 전문의약품을 양 날개 삼아 한껏 도약하겠다는 동아제약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7>